

자료제공 : 2024. 1. 31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교통정책과장

이진구

2133-2210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: 2쪽

교통수요관리팀장

김종민

2133-2224

기후동행카드 30일(화) 하루동안 16만명 사용, 누적 약 28만장 판매

- 1.30.(화) 기준 총 27만 8천장 판매, 모바일 10만 4천장, 실물 17만 4천장
- 이날 하루에만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) 16만 2천명, 따릉이 855명 이용
- 실물카드 인기로 품귀 현상, 긴급 15만장 추가 생산 중...2.7.(수)부터 물량 재공급

-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.30.(화)까지 누적 27만 8천장이 판매되었다.
 - 서울시는 지난 1.23.(화)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시작된 이후로 ▲ 모바일 104,118장 ▲ 실물카드 173,957장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.
 - 최다 판매역사는 ▲선릉역(2호선), ▲홍대입구역(2호선), ▲신림역(2호선), ▲까치산역(5호선), ▲삼성역(2호선) 순으로 회사원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2호선 구간에서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.
- 또한 1.30.(화) 하루 동안 16만 2천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전일 14만 2천명 보다 14% 증가한 수치이다.

- 기후동행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는 총 만 55건으로, ▲지하철 26만건, ▲버스 29만건을 각각 이용하였다.
 - 기후동행카드로 최다 이용한 지하철 역사는 ▲강남역, ▲구로디지털단지역, ▲신림역 ▲선릉역, ▲잠실역 순이며, 버스는 ▲143번, ▲160번, ▲130번, ▲152번, ▲272번 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이날까지 따릉이를 등록한 사람은 3,896명(누적)으로 30일 하루에만 855명이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였다.
- 시는 당초 실물카드 20만장(예비 10만장 포함)을 준비하였으나, 예상보다 실물카드의 큰 인기로 빠르게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어 추가 15만장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, 오는 2.7(수)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.
- 일부 판매처에서 잔여 물량을 판매하고 있으나 오전 중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 고객안전실이나 편의점을 방문전 확인이 필요하다.
 -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‘모바일티머니’ 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수량제한 없이 발급·충전할 수 있다.
- 한편, 실물카드의 경우 티머니 카드&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 알림 및 환불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